

유통·화장품 한 주 딱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면세점 대전’ 이제 1라운드...9월 더 뜨거운 2라운드 (스포츠동아 15.7.12)

치열했던 별들의 전쟁, 아직 2라운드가 남았다. 관광·유통업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별들의 전쟁’,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가 10일 발표됐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대기업 부문에서 승자가 됨.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됨. 10조원대 면세점시장 주도권을 두고 오너까지 직접 나선 경쟁이어서 엇갈린 승패의 희열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면세점 대전’은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9월부터 서울 3개, 부산 1개의 면세점을 두고 다시 전쟁이 벌어질 예정. 현재 영업 중인 서울시내 면세점 중 먼저 광장동 웨라톤 워커히 호텔 내 서울워커히면세점이 11월 16일 특허가 만료됨. 이어 12월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본점)(12월22일)과 잠실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의 특허가 끝남. 과거에는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이었지만,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 특히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를 자동 갱신해주던 것을 없애고, 이제는 다른 입찰업체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됨. 관세청은 9월25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면세점 특허 입찰 신청서를 받을 예정.

토니모리 종다 말았네..(한국경제 15.7.10)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상장한 토니모리 주가는 시초가(6만4000원) 대비 21.09%(1만3500원) 급락한 5만500원에 마감. 오전 한 때 고점인 7만3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매도세가 이어짐. 우선주를 제외하고 이날 코스피 종목 중 가장 큰 하락폭임. 주가 급락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내심 당황한 분위기. 지난달 진행한 수요예측과 이달초 일반공모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 토니모리의 주가 하락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원브랜드샵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

백화점 지하로 몰려드는 소비자들.. 식품관 인기몰이 (충청투데이 15.7.12)

아웃도어의 독무대였던 백화점 지하 매장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변모 중. 소비자들이 ‘멋’보다 ‘맛’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각 백화점들마다 매출 효자품목이었던 기존의 아웃도어 자리를 식품관(푸드코트 및 생활용품관)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 12일 본보가 지난해 동기대비 지역 백화점(롯데백화점 대전점·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세이)들의 품목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아웃도어의 판매는 다소 주춤한 반면 식품 및 생활용품의 판매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소비트렌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백화점 정기 세일 매출에서도 감지 중.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여름정기 Lovely 세일의 매출 실적에서 지난해 동기대비 주방식품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가전제품(13%), 식품 상품군(7%) 등이 뒤를 이은 반면 아웃도어는 -4%로 부진한 결과를 보임. 백화점 세이 또한 주방식품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침구(46.4%), 생활용품전문관(28.4%), 가전(3.8%)등에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으나 아웃도어는 10.1% 감소세를 기록했고 갤러리아타임월드 역시 생활가전, 가구, 침구 매출과 식품관 매출은 각각 10%, 3% 이상 신장함.

GS홈쇼핑, 해외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압도적 (위클리오늘 15.7.12)

GS홈쇼핑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해외 홈쇼핑에서 판매된 한국 상품의 집계결과 중소기업 상품들이 대기업 제품보다 압도적”이라고 밝힘. 특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7개국의 홈쇼핑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의 전체 판매액의 90%이상은 중소기업 상품임. 각 나라별로 중국에서는 휴롬 원액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스팀큐 다리미, 태국에서는 해피콜 프라이팬 등이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주방용품 판매를 선도함. 화장품도 강세로 인도에서는 오리엔탈플루바 디스크럽과 오제끄 파운데이션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며 기업을 포함. GS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며 동반성장하는 목표로 중기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전함.

“메르스 바닥 찍었다”… 명동 등 화장품 핵심상권에 활기 돌아 (뷰티누리 15.7.9)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명동, 가로수길, 삼청동, 이대 등 화장품 핵심상권에 서서히 활기가 돌고 있음. 아직 까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의 수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았으나 국내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각 상권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양상임. 메르스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하면서 명동상권은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음. 7월 들어 명동에 나타난 주된 변화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마스크를 쓴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다는 것. 가장 우려됐던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긴 덕분. 이에 따라 명동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도 6월과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추세임. 메르스 사태로 지난 6월 현대·신세계·롯데 등 주요 백화점은 전년 대비 4~8% 가량 매출이 떨어졌으나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백화점 매출은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임.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7월부터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며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본다” 고 밝힘.

코멘트

전주 동향 (7/6~7/10) 면세점 입찰 임박, 입찰 가능성을 두고 주가 변동성 심화

- 시내면세점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후보군에 있는 주요 백화점과 유통업체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임.
- 그 동안 시내면세점의 입찰 가능성으로 모멘텀을 반영해 온데 반해 발표를 앞두고 차이실현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화장품 및 중국관련 소비재는 중국발 주식시장 충격에 따른 무차별한 급락을 수반

금주 전망 (7/13~7/17) 중국 증시 급락과 중국 관련 소비재 기업 영향

- 화장품 및 생활소비재 업종은 2분기 메르스 영향과 3분기 회복 정도에 따라 센터먼트 회복도 달라질 전망
- 일부 백화점의 주가는 시내면세점 입찰 가능성만으로 급등락을 반복해 왔음. 입찰 확정과 향후 사업모델 변화와 투자계획에 따라 백화점 주가는 모멘텀 트레이딩에서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이슈를 반영할 것으로 보임

표 1.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KOSPI	2,027.81	-3.64	롯데쇼핑	-4.36	4.54	-8.89	GS홈쇼핑	-10.10	-11.94	-21.23
KOSDAQ	726.01	-5.62	현대백화점	-9.60	-6.51	-10.78	BGF리테일	-6.49	10.90	13.44
유통업	560.40	-5.31	신세계	-5.18	1.38	5.56	GS리테일	-4.49	11.82	29.53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3.40	0.44	-7.91	코웨이	0.33	6.30	-0.44
KRW/USD	1,128.30	0.43	롯데하이마트	-9.03	-4.32	-20.83	아모레퍼시픽	-14.41	-3.80	-5.94
KRW/JPY	925.29	1.35	CJ오쇼핑	-4.62	1.94	-13.91	LG생활건강	-9.40	-7.37	-12.87
KRW/CNY	181.56	0.28	현대홈쇼핑	-7.56	-9.47	-12.70	코스맥스	-13.61	-11.60	-1.30
			엔에스쇼핑	-5.21	0.76	-14.89	한국콜마	-15.70	-10.05	-0.95

자료: IBK투자증권